



캄보디아의 명절과 선물 문화

캄보디아의 3대 명절

1 풀츠남 트메이 (Choul Chnam Thmey)

‘풀츠남 트메이’는 캄보디아 전통 설날로, ‘새해에 들어간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4월 중 건기의 수확을 마치고 장마철이 시작하기 전에 열리는 풀츠남 트메이는 노동의 결실을 즐기는 의미가 있다. 이 기간에 캄보디아 사람들은 집 앞에서 제사상을 차려 축복을 기원하고 전통놀이를 한다.

또한 부모에게 선물을 드리고 함께 식사하며 친척 집을 방문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찰을 방문해 승려들로부터 축복을 받은 향수로 불상을 씻기도 한다. 이를 부모·조부모의 머리에도 부어주는데 이는 부처와 부모·조부모에 대한 존경을 뜻하고 그들의 장수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풀츠남 트메이 (Choul Chnam Thmey)

- 1 전통의상을 입은 캄보디아 여성
- 2 풀츠남 때 행해지는 전통놀이
- 3 탑에서 기도드리는 캄보디아인



1



2



3



1

**프쑼번
(Pchum Ben)**

2 프쑼번 (Pchum Ben)

캄보디아 전통 추석인 '프쑼번'은 양력으로 9~10월에 해당하며, 사흘간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쫄تام 트메이가 가족이 모이는 날이라면, 프쑼번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다.

프쑼번을 포함해 보름 동안 독실한 불교도들은 7개의 절을 방문하는데, 이는 7대 조상까지 모시고 추모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기간에 캄보디아 사람들은 새벽에 절을 찾아 승려들에게 시주하고 극락에 가지 못한 조상들이 굶지 않도록 주먹밥을 쌓은 접시를 올리는 문화가 있다.

2



3



1, 2 프쑼번 시주 때 모습

3 주먹밥을 쌓은 접시 올리기

자료 tourismcambodia 홈페이지, 프놈펜포스트, 크메르 타임즈

3 본옴톡 (Bom Om Touk)

'본옴톡'은 캄보디아의 물 축제로, 우기가 건기로 바뀌는 시점에 열린다. 양력으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해당한다. 본옴톡의 하이라이트인 보트 경기는 수도 프놈펜과 지방에서 개최된다. 프놈펜에서 열리는 보트 경기는 각 지방을 대표하는 보트가 모두 참석하므로, 그 규모가 가장 크다. 지난해 코로나19

로 인해 공휴일은 유지가 되었으나, 보트 경기 등의 행사는 열리지 않았고 올해 역시 행사는 취소되었다. 2019년에는 전국에서 보트 289척과 약 2만 명의 선수가 프놈펜에서 열리는 본옴톡 행사에 참여하였다.



**본옴톡
보트 경기 모습**

자료 크메르타임즈, boreiangkor 홈페이지, tourismcambodia

눔언쌔¹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된 드라이업²

다양한 외국산 초콜렛과 쿠키가 들은 명절 선물 바구니

자료 awanderingfoodie, phnompenhflower, flowers4cambodia

명절의 시주·선물 문화

졸츠남과 프쑤벤이 되면, 독실한 불교도인이 아니더라도 불교를 믿는 대다수의 캄보디아인들이 사찰을 찾는다. 밥, 반찬 그리고 ‘눔언쌔(Nom Ansom)’를 준비해간다. 이외에도 ‘드라이업’이라 불리는 별도의 선물과 돈을 준비해가는 경우도 있다. 드라이업은 절에서 기거하는 승려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구성한다. 과거에는 필요한 것들을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했지만, 요즘은 아예 세트로 만들어 판매되고 있다. 세트상품의 가격대는 구성품에 따라 10달러부터 100달러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1. 눔언쌔는 찹쌀에 바나나, 돼지고기를 넣고 찌서 바나나 잎으로 감싼 음식이다.
2. 드라이업은 주로 초, 설탕, 캔 통조림, 음료수, 과자, 향 등으로 구성된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한국 홍삼 및 인삼



자료 redginsengcambodia



작성자 캄보디아사무소 김선경

Key Point

온 가족이 모두 모이는 캄보디아의 전통 설날인 졸츠남 트메이는 전국적으로 연중 소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다. 또한 본 음독 역시 프놈펜시를 중심으로 보트 경기로 인한 인파가 많이 몰리므로, 소비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시주에 맞추어 적절한 프로모션과 명절용 선물세트를 기획한다면, 상품의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한국산 과일은 캄보디아에서 프리미엄 과일로 여겨져 그 품질이 뛰어나다는 것을 현지인들이 잘 알고 있다. 다만 프리미엄 과일인 만큼 대부분의 소비자가 가격 면에서 부담을 느낀다. 필자는 4~6개월이 소포장을 하여 선물세트로 구성하면 명절 선물용으로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절 선물이나 일반 선물용으로도 많이 취급되는 한국산 농식품은 홍삼, 음료수, 초코파이류, 김 등으로 꼽혔다. 홍삼의 경우, 높은 가격으로 인해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이 있으므로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이 필요해 보인다. 프리미엄부터 저가 상품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보다 폭넓게 소비자를 겨냥한다면 더욱 활발한 구매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선물용 한국산 농식품

명절에는 절에만 선물세트를 준비해가는 것이 아니라, 귀한 이들의 집에 방문할 때에도 준비한다. 최근에는 초코파이, 음료수, 소주 등 한국산 농식품도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중년층이 선물용으로 외국산 건강제품을 선호하자 현지에도 인삼이나 홍삼과 같은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상점의 수가 늘고 있다. 프놈펜 시내에 홍삼 제품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브랜드 매장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브랜드들도 고객 수요에 맞춰 선물용 홍삼제품들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즈이나 뿌리째로 된 제품부터, 알약, 캔디, 젤리 등의 다양한 형태

의 홍삼제품이 선물용 상품으로 구성된다.

